

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배포 일시	2023. 2. 10.(금)
담당 부서	국제산림협력관실 해외자원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이용권 (042-481-4080)
		담당자	사무관 유상아 (042-481-4088)

해외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킨 멸종위기종, 기념우표로 알린다

-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 4종 기념우표 발행 -

□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(REDD+)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2023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다고 10일 밝혔다.

* REDD+ :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(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)

□ 기념우표에는 캄보디아 캄퐁툼주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 보호한 말레이천산갑(Manis javanica), 오스톤사향고양이(Chrotogale owstoni), 인도차이나원숭이(Trachypithecus germaini), 그리고 보닛긴팔원숭이(Hylobates pileatus) 등 4종이 소개된다.

□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퐁툼주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(REDD+)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9월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점검(모니터링)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○ 레드플러스(REDD+)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산림보전,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부분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.

○ 특히, 사업지 내 91종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였으며, 이중 조류 2종과 포유류 9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(IUCN)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.

□ 기념우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.

□ 이용권 해외자원담당관은 “레드플러스(REDD+)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, 생물 다양성 보전,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”이라며, “산림청은 레드플러스(REDD+)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, 이를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에 활용함은 물론, 다양한 비탄소 편익에 기여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첨부 : 기념우표 시안

